2020.12.20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가문복음화와 RUTC성전을 준비한 렘넌트 다윗
- 복음으로 여는 역대상 -

역대상22:2-5, 고전3:16

정윤돈 목사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다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다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먼저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내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 나아가 237 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중 역대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성전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이 성전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진정한 성전건축의 완성은 성도들을 다윗처럼 RUTC성전을 세울 수 있는 3서밋(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다. 광야의 성막이 발전하여 성전이 되었다. 이 성막을 회막, 장막이라고도 불렀다.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들과 재료들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전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고 RUTC센터가 되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렘넌트, 중직자들, 성도들도 현장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인턴십을 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 역할을 해야 할 곳이 교회이다. 모든 부분을 준비시켜서 현장에 나아가서 정복하는 것이다. 다윗의 성전준비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당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파하는 문화센터 RUTC였고, 영적인 컨셉과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작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 인턴십의 현장이였다. 즉 메이슨 전쟁이었던 것이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3서밋(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과 3제자(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미니스트리)로 양육하는 문화정복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을 미리 보고 준비한 렘넌트 출신의 중직자였다. 그러나 가문복음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1, 2, 3 RUTC성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키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고백할 때 모든 응답은 따라올 것이다. 우리는 완전복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며, 충분하며,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완전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 내가 못하면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1. 첫 번째로 역대상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리겠다.

(1) 기록 시기는 BC.450년 경이고, 에스라 선지자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기서는 두 번째로 다시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서이다. 약 100년 전에 기록된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온 이유에 대한 기록된 내용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때 사무엘상, 하와 열왕기상, 하를 기록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다시 재해석해서 쓴 역사책이 역대기이다.

(2) 그렇다면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포로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전도 회복되지 못했다. 왕권도 회복되지 못했다. 아직도 속국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의 방향을 잡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붙잡아야 할 응답의 방향을 알려 주신 것이다. BC.516년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진정한 성전 재건의 의미와 방향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역대기서이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미래를 말씀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요셉은 종살이를 했지만 전혀 갈등하지 않았다. 그 속에서도 응답을 받았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한다.

(3) 역대기의 위치이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구약성경의 정경을 결정할 때에 역대기서는 히브리 성경에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도 히브리서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성경은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상, 하서이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스가랴)의 피까지(역대하 24장 내용)'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 때 당시도 구약성경의 마지막은 역대상,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대상,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구약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준 말씀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4) 족보 기록의 의미이다. 역대상에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역대상서는 왜 언약의 족보가 처음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유다 족속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가나안에 있는 유다 족속의 땅에 정착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9장 1절의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역대상, 하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대상 9장 2절의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역대상서는 바벨론 포로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다윗 왕의 공적에 대하여 기록한 이유이다. 구약성경 중 사무엘상, 하서와 열왕기상, 하서 그리고 역대상, 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시대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이다. 그런데 유대와 이스라엘의 남북왕국의 역사를 보면 약 39명의 왕들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장 잘 걸었던 왕이 바로 다윗왕이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역대상서는 이전에 기록된 사무엘상, 하서와 열왕기상, 하서와 그 내용들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6) 즉, 역대기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역사서라는 것이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의 내용이 많이 나오나 역대기서에서는 가능하면 죄와 허물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들만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열왕기서를 신명기적 사관, 즉 율법적인 사관으로 기록한 책으로, 역대기서는 복음적인 사관으로 기록된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그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열왕기서는 포로기 전에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포로생활을 모두 끝마치고 다시 와서 땅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를 맞고 왔으니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서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아,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이 RUTC성전을 건축하여 다윗 왕 시대에 받았던 영화와 축복을 회복하자'라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가문을 살려야 하는 성도와 렘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역대상은 그 내용의 절반이 족보에 관한 기록이다.

① 이 족보에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가문과 언약이 전달되지 못한 가문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다.

② 하나님은 12지파가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 똑 같이 땅을 분배해 주었다. 그러나 복음을 따른 가문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가문들이 있

었다.

③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가문을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역대상에 전반부에 나오는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언약과 복음을 따르는 나라와 민족과 가문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언약과 복음이 끊어진 나라와 민족과 가문은, 단기적으로는 이 땅에서 강대국을 이루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지식, 과학, 권력, 4차 산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영원한 멸망이다.

(2)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언약을 붙잡아야겠다. 가문복음화를 위하여 부모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①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종교, 우상숭배, 제사, 자살, 중독, 이혼, 고집, 불순종, 폭력, 무능을 통해서 재앙과 저주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아직도 흐르고 있는 부모님과 조상들의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한다.

②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옛 틀을 새 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다.

③ 그리고 부모들은 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사실 자녀들은 대단한 인물이 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복음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말씀포럼, 기도포럼, 전도포럼을 나누어야 한다.

(3) 다음은 가문복음화를 위하여 렘넌트가 할 일이 있다. 우선 오직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가문의 문제와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 먼저 우리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불신자상태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똑똑한 머리, 재능, 성실한 체질과 같은 가문의 장점이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승화되어야 한다. 가문에 흘러내려온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면 언약적 한을 가지고 복음으로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하겠다는 미션을 평생의 응답으로 붙잡아야 한다. 가문의 문제가 나의 미션이고 내가 평생 도전해야 할 나의 로마이기 때문이다.

3. 세 번째로는 렘넌트 출신 다윗 왕이 준비한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승리하는 체질을 렘넌트 시기에 준비하였다. 다윗은 유년시절부터 믿음과 실력을 키웠다.(시편 78편 70-72절) 또한 소년시절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미래를 보았다.(사무엘상 16장 1-13절) 그리고 다윗은 청소년시절에 참된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었다.(사무엘상 17장 1절-47절) 위기의 청년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다.(시편 23편)

(2) 다윗은 중직자시절에 왕(서밋)이 되었을 때는 RUTC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하였다.

①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았고, 언약궤 중심으로 성전을 준비하였다. 다윗은 언약궤를 직접 메고 가서 장막가운데 두었다. 역대상 16장 1절이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② 먼저 자신이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였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1절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에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영적상태를 가져야 한다. 역대상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다. 시편을 읽으면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나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다윗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전도자의 구호까지 주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3)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먼저 예배를 회복하였다. 역대상 16장 2절에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번제는 원죄 해결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누렸던 것이다.

(4)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서밋타임을 가졌다. 역대상 16장 40절이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5)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RUTC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충분히 미리 주셨던 것이다.

① 성전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였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이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② 다윗은 성전건축을 위한 모든 재정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 두었다. 역대상 22장 14절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재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③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할 레위인들의 역할을 알고, 준비하였다. 역대상 15장 2절을 보겠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 어디서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조심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겸손과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였던 것 이다.

④ 또한 성전에서 찬양할 찬양대를 준비하였다. 역대상 23장 5절이다. '사천 명은 문지기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RUTC성전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1.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지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2.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실수를 했어도 바로 회개를 하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도 용서할 수 있었다.

3. 교회와 예배와 목회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중직자였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셨다.

4. RUTC성전 준비를 위한 우리교회의 도전할 미션이다. 가정형 어린이집, EMS 영어유치원, 고등학생 대학생 미션홈, 치유상담센터(중독, 부부, 아동청소년), 노인재가, 노인요양원,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4차 산업을 위한 3기업팀, 기독교 문화컨텐츠 팀을 세우는 것이다.

일평생 다윗처럼 미래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올인하다가 RUTC성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모든 방향을 말씀을 통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 이상의 언약을 붙잡고 성취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